

“제조사서 솔루션 제공자로... 3년간 전동화에 9조 투자”

〈동력원·내연기관→모터〉



고영석 현대모비스 기획실장(상무).

인터뷰

고영석 현대모비스 기획실장

HYUNDAI MOBIS

전동화 설비 확충·R&D 확대
PBV, 현대모비스 사업 직결
올해 UAM 기술개발 전략 수립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완성하는데 힘을 보탠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이 꿈꾸는 미래 이동성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인용 비행체(PAV)와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등 각종 플랫폼에 적용하는 부품 개발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향후 3년간 약 9조원을 전동화 설비 확충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스타트업 투자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고영석 현대모비스 기획실장(상무)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내 현대모비스 전시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미래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자동차 OEM 제조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전체에 대한 솔루션 제공자가 된다는 사업 전략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비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 차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전체적 그림을 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고 상무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구성하는 플랫폼 중에서도 현대모비스가 기여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PBV를 주목했다. 고 상무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PBV가 현대모비스 사업과 직결된다”면서 “이를 가능케 하는 여러 기술들이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CES 2020에서 현대차가 공개한 PBV는 도시의 상징, 이동형 삶의 공간, 군집주행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적용해 개인화 설계 기반 도심형 전



현대모비스 CES 2020 내 전시부스.

환경 모빌리티를 추구하고 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탑승객이 카페나 병원 등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동 중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제작한 개인화 설계 기반의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고 상무는 PBV와 현대모비스의 관련성에 대해 “PBV를 구성할 때 다양한 형태의 캐빈 등 있는데, 이번 CES 2020에서 현대모비스가 전시한 엠비전 S도 PBV의 구성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모비스의 모듈사업 중 새시모듈 형태가 발전된 부분이 스케이트보드(분리가 가능한 차체의 하부) 아키텍처와 연결이 된다”며 “모듈 연구소에서 PBV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알루미늄 바디로 샘플 제작한 게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PAV 등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에서도 현대모비스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이나 반도체 부품이 다르듯 자동차와 항공 분야의 부품도 완벽하게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 상무는 “UAM은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다”며 “기존 보유한 기술과 직결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직결되더라도 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현대모비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동력원인 모터의 경우 연계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상무는 “처음에는 배터리 시스템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륙중량이나 항속거리 면에서 유리한 수소연료전지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현대모비스가 가진 기술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중 UAM과 관련된 기술개발 전략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3년간 투자재원 약 9조원을 확보하고 전동화 설비 확충과 성장잠재력 기술, 스

타트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고 상무는 “전동화 분야 부품 생산능력 확장에 3조~5조원, 성장을 이끌 기술과 제품 연구개발에 4조~5조원, 스타트업에 1500억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재원 확보 계획에 관해선 지난해 초 기준 보유현금 7조4000억원에 매년 현금 1조4000억원~2조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3년 후엔 12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3조5000억원은 남겨둬야 한다고 고 실장은 설명했다. 핵심부품 기준으로 매출 약 10조원 중 연구개발(R&D) 투자 지출 비중을 약 7%에서 10%로 늘린다는 계획은 유효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는 글로벌 부품업체인 보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 상무는 “채권 중 1조원 가량은 자기주식 매입 등 주주환원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o@metroseoul.co.kr

회계법인 양극화 심화... 상생 방안 절실

» 1면 ‘인력 유출, 일감도...’서 계속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형회계법인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현재 전체 회계법인의 수는 180개 가량인데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인 회사는 37개사 뿐이다. 지정감사 일감을 20%가 독점하는 형태인 셈이다.

또 대형 회계법인의 일감이 늘어나면서 인력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공인회계사 합격자 대부분이 4대 회계법인에 집중되고 있다.

김 회장은 “회계사들이 미등록 회계법인에서 감사인등록법인으로 회사를 옮기고 있다”면서 “중소회계법인은 일감도 줄어 들고, 사람도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 ‘상생방안’ 마련

이에 따라 한공회를 비롯한 회계업계는 중소회계법인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과다수입 문제를 철저하게 감시해 ‘낙수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최종경 한공회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및 송년회’에서 “현재의 과다수입 문제에 대해서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과다수입된 부분을 정리하면 대형 회계법인의 일감이 중

소형회계법인으로 넘어가는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명성 지원센터’를 통해 중소회계법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과 중소회계법인이 회계 및 회계감사업무를 할 때 마주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해당 센터는 최근 센터장을 선임하고, 오는 17일 개소식을 가질 계획이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자체적으로는 감사인 등록제,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이른바 ‘상생특위’를 통해 관련 제도 규제 완화에 나선 상황이다.

김 회장은 “상생특위에서 공인회계사 경력지수 폭을 넓히고 피감사인 회사의 지정 점수 배수를 현 3배에서 4배로 늘리는 안을 합의했다”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해당 안건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회계법인 스스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전자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갖추는 등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지방금융 빅3, 신남방서 새 활로 모색

(BNK, DGB, JB)

잠재력 높은 국가에 금융서비스
지점 설치로 수익성 확대 나서

3대 지방금융지주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신남방(아세안+인도) 국가를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시장 포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의 계열사 BNK부산은행은 올 1분기 내 중국 난징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9월 중국 강소성(난징 소재)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난징지점 개점이 중국 내 영업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분기 내 개점을 목표로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은행은 중국 칭따오와 베트남 호치민에 지점을 보유하고 미얀마, 양곤,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에 지점 개설을 위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BNK캐피탈이 운영하고 있는 4곳의 총 자산은 지난 2018년 말 584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716억원으로 132억원 증가했다. 특히 미얀마와 라오스는 지난 2018년 말 자산이 각각 157억

〈지방금융지주 신남방 진출 현황〉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BNK 부산은행	BNK 캐피탈	DGB대구은행	DGB 캐피탈	JB 전북은행	JB 광주은행	JB 우리캐피탈
중국칭따오 베트남 호치민 중국 난징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특수은행 중국 상하이 베트남 호치민	라오스	프놈펜 상업은행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회사 중국 무석	미얀마

/자료=각사

원, 294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306억원, 44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DGB금융그룹의 계열사 DGB대구은행도 올 상반기 중 베트남 호치민에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베트남 중앙은행인 베트남국영은행(SBV)이 대구은행의 호치민 지점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승인해 최종인가만 남겨두고 있는 것.

현재 대구은행은 캄보디아에 특수은행(DGB S.B)을, 중국 상하이에는 지점을 보유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미얀마에 DGB마이크로파이낸스(MFI)를 출범했다. DGB캐피탈은 라오스에 리스회사(DGB라오리싱)를 운영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특수은행은 지난해 3분기 8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말 74억원의 순이익에서 6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JB금융지주의 계열사 JB광주은행은 베트남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도 인수해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JB금융 관계자는 “베트남의 경우 연 6%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부동산 및 인프라개발의 투자확대가 기대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인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JB전북은행은 캄보디아의 프놈펜 상업은행(PPCB)을 운영하고 있고, JB우리캐피탈은 미얀마에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프놈펜 상업은행의 순이익은 지난 2016년 27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143억원으로 5.3배 증가한 수준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